

'분열'을 넘어 '연대'로

현대자동차노조 현장조직운동의 발전을 위한 제안

반일효

현대자동차노조 노동대학원 1기

현대자동차노조는 11월 14일 제1기 노동대학원 졸업식을 가졌다. 8월 23일부터 시작된 노동대학원은 50명이 입학하여 48명이 졸업하였다. 노동대학원은 현대자동차노조 13년을 반성·계승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노동대학원 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졸업논문 제출이었다. 졸업논문 제출은 교육참가자들이 노동운동의 과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최우수 논문으로 현대자동차노조 현장조직운동의 문제점과 실현과제를 주제로 논문을 쓴 반일효 동지 글을 뽑았다. 이 글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현장조직운동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한 현장활동가의 고민이 잘 담겨 있다.

한국의 대표적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현장활동가의 문제인식을 통해 우리 노조운동이 당면한 문제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소개한다.

1. 들어가면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안에 현장조직은 열 개가 넘는다. 현장조직의 천국이 아닌 가 싶을 정도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조직이 활동하는 현대자동차노조는 다가오

는 위기에 맞설 대응역량과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열 개로 나눠진 조직은 각 조직의 이념과 노선에 충실하며, 서로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대자동차노조 13년 역사에서 이념과

노선 문제로 조직이 나뉘진 경우는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 노조위원장 자리를 염두에 둔 갈등이 분화의 주된 어유일 것이다. 따라서 조직 분화를 되짚어 보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대자동차노조 활동가들의 이념과 노선 그리고 실천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이중 잣대를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2. 지금까지 현황과 현장조직 활동 평가

1) 패권적 조직분화

현대자동차노조(이하 현자노조) 설립 초기에는 '노사협조적 조합주의'와 함께 계급적 운동을 주도하던 '민주적 조합주의' 간의 경쟁이 있었고, 이후 '계급적 운동론'과 '민족문제 해결론'으로 분화하였고, 다시 '전투적 노조주의'와 '사회참여적 노조주의'로 평가분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자노조의 대다수 현장조직은 이들 스펙트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 현장조직의 다양한 분포는 현장조직력 강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노동자적 동질성이라는 지켜야 할 부분에게서 약영향을 끼쳐 자기정체성과 현안문제 해결의 고리마저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현장조직들은 내용적으로 운동대의를 이

용, 패권적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선거시기에 명망가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여기서 오는 오해와 갈등이 현장조직의 분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현자노조 안의 현장조직 분화는 이념과 노선의 대립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패권적 조직 장악을 둘러싼 인간적 갈등과 이로 인한 분열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대안부재와 끌어내리기

이렇게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현장조직의 운영은 몇몇 핵심인물이 좌우하며, 본래 의미인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나 의식고양을 통한 실천능력 향상 등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여기에서 중심 인물의 정치적 이해가 여과 없이 조직 내부로 옮겨와 조직간의 감정 대립이 격화될 때가 많았고,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사업에서도 연대 활동이 이뤄질 수 없는 사이가 되기도 하였다.

조직의 운영이 이러하니, 실무나 활동을 담당할 활동가 양성보다는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동원이나 지나친 상호견제가 초래되었고, 이 때문에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상생(相生)적 경쟁보다는 상대방 끌어내리기 식의 기풍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장조직의 역량이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

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거기다 노조 집행부를 장악한 현장조직 역시 지금까지의 관성으로 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집행부 중심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노조를 운영하였고, 집행부에 참여하지 않은 현장조직 역시 노동조합 활동을 통째로 사그라지 못하고 '집행부 끌어내리기' 식의 활동을 열심히 해온 것이 오늘까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3) 집행 할 수 없는 집행구조

분화와 갈등이 오랜 동안 지속된 결과, 노조집행부와외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현장조직의 본래 취지는 과거 '노동조합 민주화 추진 위원회'(노민주) 시절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물론 노동조합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상황변화에 걸맞은 노민주의 역할 정립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사실 상호보완 및 지원관계의 정립은 노동조합의 집행력과 조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분화와 갈등의 결과 현장조직이 노조집행부를 장악하더라도 다른 현장조직과의 협력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졌다. 현장조직의 분화와 갈등은 능력 있는 인사들을 노조집행부로 결집시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집행부 선거운동 시기에는 자원

봉사자나 자기 직원들로서 대처가 가능하지만, 집행부가 출범한 다음에는 다른 조직의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집행부를 맡게 된 현장조직이 핵심활동가 가운데서 노조상근자를 충당하고 나면, 현장조직이 꺾이기 조직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합 집행부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4) 이념과 패권

이상에서 필자는 현자노조 안에서 현장조직간의 조직분화는 이념과 노선 때문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했다. 처음 몇 년이 다양한 이념과 노선의 등장과 그에 따른 분화였다면, 이후 시기는 조직장악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선 활동가들은 토론과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사실 동원대상, 거수기, 현금출납기로 여겨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조직간 패권 경쟁의 피해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지치고 실망하게 되었고, 상당수는 중도에 조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아예 노조활동 자체로부터 떠나고 있다.

명망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의 동질성까지도 훼손하여 아물지 못

**현장조직이 노조활동의 기반이 될 현장활동가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단위가 되지 못하고, 기성 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

할 깊은 상처를 상대방에게 남기며, '자
본' 과는 손잡아도 현장조직들과는 같이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왔다. 또한
현장조직이 노조활동의 기반이 될 현장
활동가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참여민주주
의 단위가 되지 못하고, 기성 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왔
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돌아볼 때, 현재 현장조직
에서 내세우는 '조직의 정체성'이나 '이
념'은 치장용에 불과하다고 느낀다. 물론
확고한 의식을 갖고 운동대외에 충실한
활동가도 없지는 않지만, 이들의 순수성
이 조직간 패권경쟁에 이용당해온 것도
사실이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은 지금의
사회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마련이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선을 채
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운동은 노선
과 이념을 실천하는 하나의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소련의 경험을 통해 '국
가사회주의' 실험을 목도하였고, 이제 대
안사회를 위한 새로운 실험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가 고민하는 실험은 현자노조 안
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내 생각으
로는 현장조직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포
용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으로 조직 갈등과 반목의 골
을 메우고, 이를 통해 서로의 이념과 노
선을 큰그릇에 용해시키는 과정이 필요
하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
는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 현실적인 근거
도 없이 다른 조직을 배척해왔던 분위기
는 없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현장조
직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
이다.

1) 새로운 실험

우리는 집이 아름답다고 하여 지붕만
보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비록 지붕이 아
름답더라도 전체적인 조형미, 질감, 견고
성 등 모든 조건을 두루 살펴 그 가치를
평가한다. 건물 지붕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이었다면, 그 아래층을 이루는 수많
은 벽돌과 기둥들은 이를 바치는 토대이
다. 벽돌과 기둥으로 이뤄진 받침이 없
다면 지붕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 조직

도 마찬가지다. 현장조직들이 자신의 노선과 이념에 따라 나뉘었지만, 각 조직의 특징에 맞는 구조물의 총과 기동이 있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역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정하고 도와줘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직 분열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분열의 한계를 넘어 현자노조 안의 부분운동으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통일운동을 하지 않으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풍토가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면, 이제 '분화'의 실험을 마감하고 서로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각자의 위치에서 노동자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의 실험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 건물의 나뉜 층처럼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노동자의 동질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제까지의 잘못된 과거를 서로 반성하고, 각 조직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2) 공유의 장을 확대해야

동전의 앞면을 너무 강조하면 동전의 양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주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전체

를 파악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이제는 현장조직의 활동과 운영을 대표 인물들에게만 맡기기에는 조직 안팎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심하다. 현장조직들이 자기 논리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조직들간의 토론과 논의의 자리가 넓어지야 한다. 명망가 중심의 '줄서기식' 활동을 탈피하여 현장조직을 조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겪고 있는 조직 안팎의 변화는 현장활동가의 자기 혁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으로서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통해 현자노조운동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현장조직들이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 명망가의 그늘에서 벗어나 조직원 스스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3) 기본규율의 정립

상호 토론과 논의가 '앞에서 어르고 나중에 뒤통수 때리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의 현자노조 활동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뒤통수치기 식의 활동풍토로는 진술한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래서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회합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서로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토론

현장조직들이 자기 논리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조직들간의 토론과 논의의 자리가 넓어져야 한다. 명망가 중심의 '줄서기식' 활동을 탈피하여 현장조직을 조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장에서 모두가 터놓고 이야기하려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논의된 것은 지키도록 한다'는 기본 규율이 세워져야 한다. 오늘날 불신의 벽이 높게 된 데는 이런 기본롤이 무너진 원인도 크다.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규칙을 지켜주어야, 서로가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래야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4. 글을 마치며

1987년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활동은 대립과 분화의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이미 무너져버린 '현실사회주의'라는 이념적 토대를 바탕으로 깔고 진행된 게 사실이다. '현실사회주의'가 자체 모순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무너진 이후 미래지향적인 대안 사회의 실험은 혼란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과 노선의 정립' 역시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립과 분화의 실험을 넘어 이제 통합의 장으로 실험 무대를 옮겨 그 가능성을 실험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과거의 산물이라면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임무이다. 이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들 자신의 자기혁신은 필수적이다. 대립과 분화의 과거를 넘어 상호이해와 연대를 통해 현자노조운동, 나아가 전체 노동운동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현자노조 안에서 노동자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